



# 보도자료

책임자 손재희 실장  
(소비자·디지털연구실, 3775-9023)  
 작성자 김동겸 연구위원(3775-9058)  
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3. 11. 3(금) 15:00부터

매수 총 4매

## 보험연구원, 「초고령사회,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」 세미나 개최

☞ 1주제 : “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”

☞ 2주제 : “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세부 목적별 투자 전략 수립 필요”

☞ 3주제 : “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”

○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3일(금) 오후 2시 『초고령사회,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』 공동세미나를 개최함

### - 프로그램 -

| 시 간           | 내 용   |
|---------------|---|
| 14:00 ~ 14:15 | (개회사) 안철경 (보험연구원 원장)<br>(축 사) 김원섭 (한국연금학회 회장)   |
| 14:15 ~ 15:30 | (발표 1)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공적연금의 미래 / 성혜영 (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)<br>(발표 2) 퇴직연금 시장 평가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/ 정도영 (한양대학교 교수)<br>(발표 3) 공사적연금의 연계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/ 김동겸 (보험연구원 연구위원) |
| 15:30 ~ 15:45 | Break Time  |
| 15:45 ~ 17:00 | (좌 장) : 김용하 (순천향대학교 교수)<br>(개별토론) : 강성모 ((주)서스틴베스트 박사), 김대환 (동아대학교 교수),<br>김수완 (강남대학교 교수), 박재만 (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),<br>원시연 (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), 이창운 (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) |

- (주제발표 1)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‘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공적 연금의 미래’라는 주제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평가함
- (재정목표) 5차 재정계산에서의 재정목표는 지난 4차례의 재정계산에서 제시된 재정목표를 계승하여 재정계산기간 70년 동안(2093년까지)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함
- (재정안정화 방안)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,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을 검토하고,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을 검토함
- (결과) 단일 수단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험료율(3개 안)과 지급개시연령 상향(3개 안),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(2개 안)를 조합하면 대안이 가능함을 제시함
  - 보험료율을 12%, 15%, 18%로 상향 시 소진연도는 2063년, 2071년, 2082년으로 연장
  - 지급개시연령을 66세, 67세, 68세로 조정 시 소진연도는 2057년, 2058년, 2059년으로 연장
  - 기금투자수익률을 0.5%p, 1.0%p 제고 시 소진연도는 2057년, 2060년으로 연장
- (평가) 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음
  -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과거 3, 4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재정목표와 재정안정화 방안이 불일치하였던 것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됨
- (공적연금의 미래)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함.
  - 평균소득 가입자의 총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45% 이상(국민+기초)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실질적인 가입기간을 최대한 높여 실제와 명목소득대체율이 수렴되게 할 필요가 있음

○ (주제발표 2) 정도영 한양대학교 ERICA 교수는 ‘퇴직연금시장 평가와 노후소득 보장강화 방안’을 주제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목적별 투자 전략(Goal Based Investing) 도입을 제안함

- (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) 2022년 말 기준 335.9조 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자금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왔음
  -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은 각각 88.7%, 11.3%를 차지
  - 실적배당형 중 성장형 자산 투자비중은 50% 내외로 추정되어 전체 적립금 중 실제 성장형자산 투자비중은 5~6%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
- (적립금 수익률 제고 방안) 전체 적립금을 세부 목적(예: 최소생활비, 여유생활자금, 자녀지원비 등)에 따라 구분하고, 목적별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GBI(Goal Based Investing) 전략 소개
  - GBI는 행동재무이론(Behavioral Finance)에 기반한 투자 전략으로 미국, 유럽 등에서 개인 재무 컨설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
  - 세부 목적별 목표 자금(또는 목표수익률), 투자 기간, 목표 달성 희망 확률을 사전에 정한 후 최적자산 배분 결정
  - 이를 통해 성장형 자산 투자 비중 확대 및 적립금 수익률 제고 기대
- (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 모델) GBI 활성화를 위해 로보 어드바이저(Robo Advisor)와 휴먼 어드바이저(Human Advisor)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(Hybrid Advisor) 모델 제안
  - 로보 어드바이저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비용으로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구현
  - 로보 어드바이저의 분석 및 투자 제안을 전통적인 휴먼 어드바이저를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 모델을 통해 GBI 활성화 및 서비스 기능 확대 기대

- (주제발표 3)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‘공·사적연금의 연계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’을 주제로,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함
    - (연금개혁 영향)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제도 지속가능성, 국민의 노후소득 수준,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
      - 연금개혁 방향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공백과 소득불평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나, 고령자의 계속근로활동이나 사적연금의 역할에 따라 영향도가 달라질 것임
    - (해외 연금개혁 사례) 해외 주요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으며, 그 과정에서 공·사 간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
    - (국내 사적연금제도의 한계) 사적연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률, 노후자산 축적 수준, 연금 수급과정에서의 일시금 인출 편중 현상 등으로 사적연금의 전 국민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여는 미흡한 수준임
    - (사적연금 역할 확대 방안)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시장의 문제점 개선과 공·사 역할분담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가 필수적임
      - 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제도,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
      -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제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     - 운용수익률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고, 일본 보험회사의 단체연금 공동관리 사례\* 에서와 같이 운영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
- \* 회사 간 비경쟁영역에 해당하는부분을 공동으로 운영
- 개인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선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연금 전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함

첨부: 발표자료 각 1부. 끝.